

1. (가)에 들어갈 자료로 적절한 것은?

[3점]

경 축 제○○회 연천 전곡리 선사 문화 축제 일시: ○○월 ○○일~○○일 장소: 연천 전곡리 유적 일대	선사 문화 축제에 초대합니다. 선사 시대인들의 생활상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 려되어 있습니다. (가)
---	---



정답: ②

* 연천 전곡리 구석기 유적

우리 나라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는 평남 상원 검은모루 동굴, 경기도 연
 천 전곡리(아슐리안 주먹도끼 출토), 충남
 공주 석장리 등이 있다. 이들 유적에서는
 석기와 함께 사람과 동물의 뼈 화석, 동물
 뼈로 만든 도구 등이 출토되어 구석기 시대
 의 생활상이 밝혀지게 되었다.

① 독무덤(광주 신창동 출토): 철기 시대에
 는 널무덤과 독무덤 등이 만들어졌다.

② 주먹도끼: 짐승을 사냥하고 가축을 벗기
 며, 땅을 파서 풀이나 나무뿌리를 캐는 등
 여러 용도에 사용하는 구석기 시대의 만능
 석기였다.

③ 팔주령 청동방울: 청동기.철기 시대의 청
 동 방울 중 하나로 제정일치 사회의 제사장
 들이 주술적 의미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
 다.

④ 청동 도끼 거푸집(전남 영암): 거푸집의
 발견으로 우리 나라에서 청동기를 직접 제
 작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⑤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 출토 붓: 철기
 시대에 이미 한자를 쓰고 있었음을 말해 준
 다.

2. 다음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5월이면 씨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들의 춤은 수십 명이 모두 일어나서 뒤를 따라가며 땅을 밟고 구부렸다 치켜들었다 하면서 손과 발로 서로 장단을 맞추었다. 10월에 농사일을 마치고 나서도 이렇게 한다.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에 각각 천군을 세워서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한다. 또, 여러 나라에는 각각 벌읍에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그 지역으로 도망 온 사람은 누구든 돌려보내지 아니한다.

- ①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 ② 가(加)들이 흉년이 들면 왕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
- ③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배상하는 책화가 있었다.
- ④ 중대한 범죄자는 제가 회의를 통하여 사형에 처하였다.
- ⑤ 가매장했던 가족의 뼈를 추려 가족 공동 무덤에 안치하였다.

정답: ①

* 초기 국가 삼한

고조선 남쪽 지역에는 일찍부터 진이 성장하고 있었다. 진은 기원전 2 세기경에 고조선의 방해로 중국과의 교통이 저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진에는 고조선 사회의 변동에 따라 대거 남하해 오는 유이민에 의하여 새로운 문화가 보급되어 토착 문화와 융합되면서 사회가 더욱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마한, 변한, 진한의 연맹체들이 나타났다.

삼한 중에서 마한의 세력이 가장 컸으며, 마한을 이루고 있는 소국의 하나인 목지국의 지배자가 마한왕 또는 진왕으로 추대되어 삼한 전체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 삼한의 지배자 중에서 세력이 큰 것은 신지, 작은 것은 읍차 등으로 불렸다.

② 부여에는 가들이 왕을 추대하기도 하였고, 수해나 한해를 입어 오곡이 잘 익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묻기도 하였다.

③ 동예는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④ 고구려는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 회의를 통하여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⑤ 옥저는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또, 목곽 입구에는 죽은 자의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가)



(나)



< 보 기 >

- ㄱ. (가) - 구석에 화덕이 설치되어 있다.
 ㄴ. (가) - 정착하여 생활하였음을 보여 준다.
 ㄷ. (나) - 표면에 농경 모습이 새겨져 있다.
 ㄹ. (나) - 빗살무늬 토기인들의 미의식이 표현되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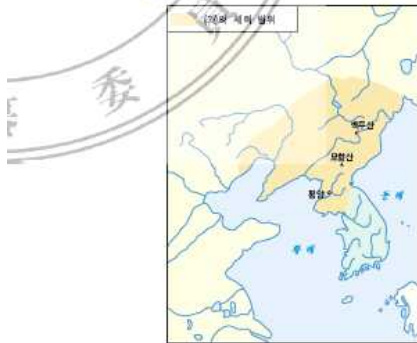
(가) 양양 지경리 신석기 움집

(나) 대전 괴정동 출토 농경무늬 청동기

• 신석기 시대의 농경을 시작하며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집터는 대개 움집 자리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움집의 중앙에는 불씨를 보관하거나 취사와 난방을 위한 화덕이 위치하였다. 햇빛을 많이 받는 남쪽으로 출입문을 내었으며, 화덕이나 출입문 옆에는 저장 구덩을 만들어 식량이나 도구를 저장하였다. 집터의 규모는 4, 5명 정도의 한 가족이 살기에 알맞은 크기였다.

• 대전 괴정동에서 출토된 농경무늬 청동기는 제사에 쓰였던 기구로 추정된다. 제사 기구에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새긴 것으로 보아 청동기 시대의 농업이 매우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 보 기 > —

- ㄱ.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되었다.
- ㄴ. 공동체에 적용되었던 법률이 전해진다.
- ㄷ. 신분 계층화와 왕권 세습화가 나타났다.
- ㄹ. 순장 묘가 포함된 지산동 고분군을 만들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고조선에 대하여

• 고조선은 한반도 서북부와 요녕 지방의 강역, 특히 요서 지역까지도 차지하였다. 고구려(요동까지만)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청동기 문화의 발전과 함께 족장이 지배하는 사회가 출현하였다. 이들 중에서 강한 족장은 주변의 여러 족장 사회를 통합하면서 점차 권력을 강화해 갔다. 이러한 족장 사회에서 청동기에 기반을 두고 가장 먼저 국가로 발전한 것은 고조선이다.

㉡ 고조선의 사회상을 알려 주는 것으로 8조의 법이 있었다. 그 중에서 3개 조목의 내용만 전해진다.

㉢ 고조선은 기원전 3 세기경에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그밑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도 두었다. 또, 요서 지방을 경계로 하여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강성하였다.

㉣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가야연맹은 5세기 후반에 크게 성장하여 그 세력 범위를 소백 산맥 서쪽까지 확장시켰다. 또, 중국 남조에 사신을 보내 교통하였으며, 고구려의 침입을 받은 신라를 백제와 함께 구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가야의 문화는 순장곽이 있는 지산동 고분군을 통해 알 수 있다(금동관, 판갑옷과 투구, 진목항아리와 받침대 등 출토).

5. 지도의 ● 표시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정답: ⑤

* 경주 지역의 문화 유산

① **경주 포석정**: 역대 왕들이 전복 모양으로 생긴 유상곡수(流觴曲水)에 술잔을 띄워 놓고 시를 읊으며 연회를 하던 장소로 여겨져왔다

② **경주 배리 석불 입상**: 중앙의 본존(本尊)과 좌·우 협시상(脇侍像)으로 구성된 삼존불 입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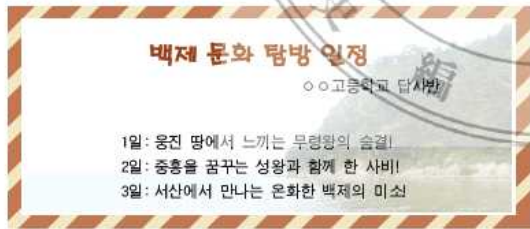
③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분황사탑은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탑으로, 지금은 3 층까지만 남아 있다.

④ **말탄 무사 모양의 빨간**: 김해 출토(국보 275호). 가야 토기로 추정되지만 현재 경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국보 91호인 경주 금령총 출토 기마인물 토기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재되어 있다.

⑤ **구례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통일신라기의 석탑으로 2층 기단 위에 3층 탑신을 얹은 후 꼭대기에 상륜부를 얹어놓은 전형적인 신라 석탑의 형태를 하고 있다. 지대석 위에는 높직한 3단 받침이 있고 하층 기단의 면석 각면에는 탱주(撐柱)가 없으나 그 대신 3구씩의 안상(眼象)을 음각하고 그 안에 천인상(天人像)을 1좌씩 12구를 양각하였다. 상층 기단에는 우주(隅柱) 대신 연화대 위에 무릎을 꿇고 앉은 암수 2쌍의 사자를 지주(支柱) 삼아 네 귀에 배치하였다

6. 다음 역사 탐방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을 <보기>에서 일정대로 고른 것은? [2점]



- | 1일 | 2일 | 3일 | 1일 | 2일 | 3일 |
|----|----|----|----|----|----|
| ① | ㄱ | ㄴ | ㄷ | ㄱ | ㄴ |
| ② | ㄴ | ㄱ | ㄷ | ㄷ | ㄱ |
| ③ | ㄷ | ㄴ | ㄱ | ㄷ | ㄴ |
| ④ | ㄷ | ㄴ | ㄱ | ㄷ | ㄴ |
| ⑤ | ㄷ | ㄴ | ㄱ | ㄷ | ㄴ |

정답: ④

* 백제의 문화유산: 용진(공주), 사비(부여), 서산)

㉠ **백제 금동 대향로**: 백제 금동 대향로는 부여 능산리 고분군 사이 절터의 한 구덩이에서 450여 점의 유물과 함께 발견되었다. 도교적 이상향을 보여준다

㉡ **서산 마애삼존불상**: 백제의 서산 마애삼존불, 신라의 경주 배리 석불 입상은 미소를 머금은듯한 당시 불상 조각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 **공주 무령왕릉 출토 진묘수**: 지석, 매지권, 진묘수(도교적 무덤 수호 짐승), 양나라 동전, 금관식, 귀고리, 진묘수, 파찌(관재에서 일본열도에서만 자라는 금송이 검출되었다) 등이 있다.

7. 다음 수업 장면에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갑: (가)는 빈공과 합격자 수를 조절하여 (나), (다)의 경쟁을 부추겼어요.
- ② 을: (가)는 (나)와 초기에 친선을 유지하였으나 후기에는 대립하였어요.
- ③ 병: (나)는 (가)와 대등함을 과시하기 위해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어요.
- ④ 정: (나)는 (다)를 견제하기 위하여 (라)와 친선 관계를 도모하였어요.
- ⑤ 무: (다)는 (나)와 신라도를 따라 사신을 교환하고 무역하였어요.

정답: ②

* 남북국 시대의 국제관계

(가)당, (나)발해, (다)신라, (라)일본

① 당의 빈공과에 합격한 발해의 인물로 이름이 전해지는 사람은 오소도(872), 고원고(892), 오광찬(906) 등 세 사람이다. 그러나 합격자는 대략 10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신라인 80명에 비하면 적는데 당의 의도적 경쟁 부추김으로 여겨지며 이로 인해 빈공과 등재 서열 사건(869년 발해 오소도와 신라의 이동 사이에 당의 빈공과 수석 다툼, 906년에도 신라의 최언위와 발해의 오광찬 사이에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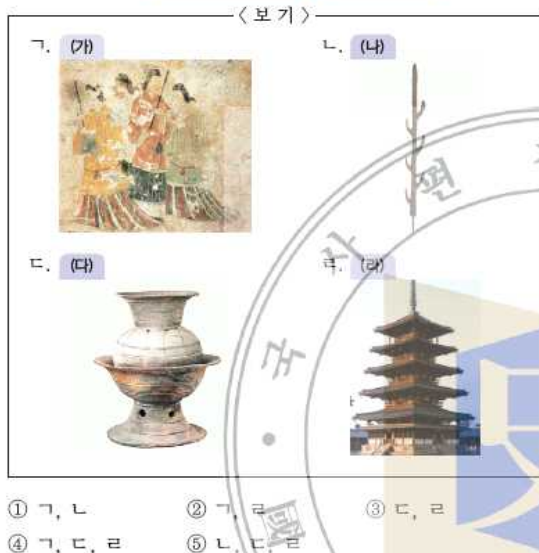
② 발해는 무왕 때에 장문휴의 수군이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고, 요서 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하는 등 적대 관계이었다가, 문왕 때에는 당과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당의 문물을 받아들여 체제를 정비하였다.

③ 발해는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왕들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인안, 대흥 등)

④ 발해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대체로 신라를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⑤ 발해는 신라와도 상설 교통로를 개설하여 대립 관계를 해소하려 하였다. 발해의 상경을 출발하여 동경과 남경을 거쳐 동해안을 따라 신라에 이르던 교통로를 신라도라 한다. 8세기 전반에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나, 자주 이용된 것은 8세기 후반 이후 9세기 전반까지이다.

9. 지도는 고대 문화의 일본 전파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와 관련된 문화재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정답: ④

* 삼국 문화의 일본 전파

(가) **다카마쓰 고분 벽화**: 고구려는 일본 고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7 세기 초에 담징은 종이와 먹의 제조 방법을 전하였고, 호류 사의 벽화를 그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승려 혜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으며, 혜관은 불교 전파에 큰 공을 세웠다. 일본 나라 시에서 발견된 다카마쓰 고분 벽화가 고구려 수산리 벽화 고분과 흡사한 점에서 고구려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다.

(나) **칠지도**: 백제에서도 금속 기술이 발달하였다. 4 세기 후반에 백제에서 만들어 일본에 보낸 칠지도는 강철로 만들고 금으로 글씨를 상감해 새겨 넣은 우수한 제품이다. 칠지도는 백제 제철 기술의 우수함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다) **스에키 토기**: 가야의 토기(수레 토기, 오리 토기 등)는 일본 스에키 토기에 큰 영향을 주었다. 보기의 자료는 대가야의 진목항아리의 영향을 받은 토기이다

(라) **호류사 5층 목탑**: 백제는 5경 박사, 의박사, 역박사와 천문 박사, 채약사, 그리고 화가와 공예 기술자들도 건너갔는데, 이들에 의하여 목탑이 세워졌고, 나아가 백제 가람 양식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10.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서경 전역(戰役)을 역대의 사가들이 다만 왕사(王師)가 반적(反賊)을 친 전역으로 알았을 뿐인데, 이는 근시안의 관찰이다. 만일 (가)이(가) 패하고 (나)이(가) 승리했다면 조선사가 독립적, 진취적 방면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니, 이 전역을 어찌 '일천년래 제일대사건(一千年來 第一大事件)'이라 하지 아니하랴.
- 『조선사연구초』 -

- ① (가) - 개경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문벌 귀족이었다.
- ② (가) - 불교적 요소와 도참 사상이 결합된 민간 신앙을 신봉하였다.
- ③ (나) - 교정도감과 정방을 통해 정치권력을 장악하였다.
- ④ (나) - 국왕을 황제라 칭하고 준풍을 연호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⑤ (가), (나) - 대결 과정에서 개경의 궁궐 일부가 소실되었다.

정답: ①

*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가) 김부식, (나) 묘청

이자겸의 난 이후, 인종은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관리들과 묘청, 정지상을 중심으로 한 지방 출신의 개혁적관리들 사이에 대립이 벌어졌다.

묘청 세력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서경(평양)으로 도읍을 옮겨, 보수적인 개경의 문벌 귀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자주적인 혁신 정치를 시행하려 하였다. 이들은 서경에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짓고, 황제를 칭할 것과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하였다(국호: 대위, 연호: 천개).

반면, 김부식이 중심이 된 개경 귀족 세력은 유교 이념에 충실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확립하자고 하였다. 묘청 세력은 서경 천도를 통한 정권 장악이 어렵게 되자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으나(1135), 김부식이 이끈 관군의 공격으로 약 1년 만에 진압되고 말았다.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문벌 귀족 사회 내부의 분열과 지역 세력 간의 대립, 풍수지리설이 결부된 자주적 전통(불교+도참사상) 사상과 사대적 유교 정치 사상의 충돌, 고구려 계승 이념에 대한 이견과 갈등 등이 얹혀 일어난 것으로, 귀족 사회 내부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었다.

③ 최충헌의 뒤를 이은 최우도 교정도감을 통하여 정치 권력을 행사하였고, 더 나아가 자기 집에 정방을 설치하여 모든 관직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⑤ 이자겸의 난(1126) 과정에서 개경 궁궐이 불타는 등 위기에 처했다.

11. (가)~(라)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가) 동지대 부대는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 용정과 대굴구 지역 등으로 진군해 왔다. 독립군은 병력의 일세를 고려하여 피전책(避戰策)을 택하였다. 제2제대 독립군은 적을 기습하기에 적당한 지형인 백운평 바로 위쪽 골짜기 길목에 잠복하여 6일간 치열한 전투를 펼쳤다.

(나) '불령선인 취제 방법에 관한 조선 총독부와 봉천성 간의 협정'이 미쓰야와 우진 간에 체결되었다. 내용은 "한인의 무기 휴대와 조선 내 침입을 엄금하며, 위반자는 검거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일제가 지명하는 독립운동 지도자를 체포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등이었다.

(다) 일제의 만주 침략으로 인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가 이루어졌다.

• 중동 철로를 경계로 하여 서부 전선은 중국 구국군이 맡고, 동부 전선은 한국군이 담당한다.

• 양 군의 전시 후방 교련은 한국군의 장교가 부담하고, 한국군의 보급품 일체 자료는 중국군이 공급한다.

(라) 분산되어 있던 독립군 부대들이 단일한 조직 아래 대일 항전을 전개하려고 조직한 대한 독립군단은 이르쿠츠크와 고려 공산당과 상하이와 고려 공산당 간의 대립으로 분열되었다. 이러한 분열 속에서 독립군들은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적색군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 ① (가) - (나) - (라) - (다)
 ② (가) - (다) - (나) - (라)
 ③ (가) - (라) - (나) - (다)
 ④ (라) - (가) - (나) - (다)
 ⑤ (라) - (나) - (가) - (다)

정답: ③

* 1920년대 항일 무장 투쟁의 변천

(가) **청산리 전투(1920.10)**: 김좌진 장군이 북로군정서와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등의 기타 제 부대가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첫 전투인 백운평 전투를 시작으로 완루구 전투, 어랑촌 전투 등 1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나) **미쓰야 협정(1925)**: 간도에 진출한 일제가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해 만주 군벌과 미쓰야 협정을 맺으면서 독립군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1925). 일본 군경뿐만 아니라 현상금을 노리는 만주 군벌 경찰의 감시와 탄압도 피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다) **한국독립군의 한중연합작전 합의(1931)**: 북만주의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의 지휘 아래 중국군과 연합하여 토일군을 조직하였다. 토일군은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라) **자유시 참변 (1921)**: 간도 참변(1920.12) 이후 독립군은 일본군의 추격이 없는 안전지대에서 부대를 재정비하기 위해 소련·만주 국경 지대인 밀산부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1921년 4월 대한 독립 군단을 결성한 후 소련령으로 이동하였다.

독립군은 헤이룽 강 연안의 자유시로 이동하였으나, 독립군 내부의 군 지휘권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소련군의 공격을 받아 이른바 자유시 참변을 당하였다(1921. 6)

12.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이 민호가 불리던
시기의 경제 상황을
말해 볼까요?



우리나라 소산물도 부끄럽지 않건마는
타국 물화 교합하니 백각전 장합시고
칠패의 생선전에 각색 생선 다 있구나
민어, 석어, 석수어며 도미, 준치, 고도어며
낙지, 소라, 오징어며 조개, 새우, 전어르다.

- ① 갑: 정부는 저화를 만들어 유통하려 하였어요.
- ② 을: 중도아가 시전에서 물건을 떼다가 팔았어요.
- ③ 병: 덕대가 물주의 자본으로 광산을 운영하였어요.
- ④ 정: 전국에 지점을 두고 활동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 ⑤ 무: 강경포, 원산포 등이 상업의 중심지로 번성하였어요.

정답: ①

* 조선 후기의 경제상(사상의 발달)

조선 후기 상업 활동의 주역은 공인과 사상이었다. 처음에는 공인이 상업 활동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18 세기 이후에는 사상이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사상의 활동은 주로 칠패, 송과 등 도성 주변에서 이루어졌지만, 개성, 평양, 의주, 동래 등 지방 도시에서도 활발하였다. 그들은 각 지방의 장시를 연결하면서 물품을 교역하고, 각지에 지점을 두어 상권을 확장하였다.

① 조선 초기에 정부는 저화, 조선통보 등을 만들어 유통시키려 하였으나 부진하였다. 농민은 화폐로 쌀과 무명을 사용하였다.

② 조선 후기에 송과·칠패·이현, 누원 등의 시장을 상대로 하는 중간도매상이 나타나 이들을 특히 중도아(中都兒)라고 불렀다

③ 조선 후기의 광산 경영은 경영 전문가인 덕대가 대개 상인 물주에게 자본을 조달받아 채굴업자와 채굴 노동자, 제련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제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작업 과정은 분업에 토대를 둔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④ 개성의 송상은 전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활동 기반을 강화하였는데, 주로 인삼을 재배, 판매하고 대외 무역에도 깊이 관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⑤ 조선 후기에 들어 포구가 새로운 상업 중심지가 되었다. 포구의 상거래는 장시보다 규모가 훨씬 컸다. 종래의 포구는 세곡이나 소작료를 운송하는 기지의 역할을 했으나, 18 세기에 이르러 강경포, 원산포 등이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포구를 거점으로 선상, 객주, 여각 등이 활발한 상행위를 하였다.

13. 다음은 어느 시기를 주제로 꾸민 역사 신문이다. (가)에 들어갈 기사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2점]

○○○○년
역사 신문

명문가문 정해지다

국왕이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명문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이제부터 종실은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취하여 부인을 삼을 것이며, 재상의 아들은 왕족의 딸과 혼인함을 허락할 것이다. …… 철원 최씨, 해주 최씨, 공암 허씨, 평강 채씨, 청주 이씨, 당성 홍씨, 황려 민씨, 횡천 조씨, 파평 윤씨, 평양 조씨는 다 여러 대의 공신 재상의 종족이니, 가히 대대로 혼인할 것이다.”

(가)

- ① 집중 취재 - 날로 늘어나는 장시, 그 원인은
- ② 기획 특집 - 대중화된 무명 옷, 의생활을 바꾸다
- ③ 정책 진단 - 재정 확충 위한 소금 전매제, 그 효과는
- ④ 신간 소개 - 「금양잡록」, 농사의 생생한 경험을 담다
- ⑤ 농촌 탐방 - 새로운 먹거리, 감자와 고구마 재배 확산

정답: ③

* 권문세족의 고려 후기

고려 후기에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소금의 전매제를 시행하였다(1309: 충선왕). 또, 관청, 관리, 사원 등은 강제로 농민에게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도록 하고 조세를 대납하는 등 농민을 강제적으로 유통 경제에 참여시켰다. 이 과정에서 상업 발달에 힘입어 부를 축적하여 관리가 되는 상인이나 수공업자도 생겨났다.

① 조선 후기 사상의 성장은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발달한 장시를 토대로 하였다. 15세기 말 남부 지방에서 개설되기 시작한 장시는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전국에 1000여 개소가 개설되었다.

② 고려 말(1363)에 도입된 목화(무명)는 조선 전기에 재배가 확대되어 의생활이 개선되었다.

④ 조선 전기에는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사직설(1429), 금양잡록(1492, 강희맹, 시흥) 등 농서를 간행, 보급하였다.

⑤ 조선 후기에 구황작물인 감자(1763, 조엄)와 고구마(19C 초)가 전래되었다

14. (가)~(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 황제의 집무실 용도로 석조전을 지은 곳이다.
- ② (나) -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된 곳이다.
- ③ (다) - 서원 철폐 등의 개혁을 논의한 곳이다.
- ④ (라) - 정조의 개혁을 뒷받침해 준 규장각이 있는 곳이다.
- ⑤ (마) - 일제가 격을 낮추기 위해 동물원을 만든 곳이다.

정답: ②

* 서울 도성의 문화 유산

- 천도 이후 한양에는 각종 공사가 잇따라 시행되어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조정과 시장 또한 비슷한 시기에 건설되었다. 성곽은 궁궐과 종묘가 완공된 이후에 건설되었다. 가장 먼저 서쪽에 사직(社稷)을 완공하고, 궁궐을 세운 뒤, 그 동쪽에 종묘(宗廟)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광화문 앞에 육조관서(六曹官署)를 배치하고, 운종가(宗路)를 두어 시전을 배치하였다.

(가) **덕수궁**: 대한제국의 정궁으로 기능하였다. 특히 석조전은 서양식 건축의 대표로서 후일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나) **경복궁**: 조선 왕조 최초의 궁궐이자 법궁(1395). 그러나 임진왜란(1592)으로 불타 조선 후기에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1865년 경복궁 중건이 이루어졌으나 대한제국이 성립된 이후 덕수궁으로 그 기능이 옮겨졌다.

(다) **운현궁**: 흥선 대원군의 사가(私家). 이곳에서 대원군은 서원철폐, 경복궁 중건, 세제개혁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다.

(라) **창덕궁**: 임난 이후 사실상 정궁 역할을 하였다. 특히 창덕궁의 후원에 새로 집을 (주합루) 짓고 고사를 따라 규장각이라 명명하고, 직제를 갖춘 한 독립된 기구로서 국립도서관의 기능을 가지게 하였고, 또한 봉당의 비대화를 막고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 기구로 육성하였다

(마) **창경궁**: 본래 이름은 수강궁으로 세종이 즉위하면서 상왕인 태종을 모시기 위하여 지은 것이다. 그 후 성종 때(1483) 세 대비를 모시기 위하여 새로 중건하고 이름을 창경궁으로 바꾸었다. 창경궁은 숙종이 인현왕후를 저주한 장희빈을 처형한 일과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일 등 크고 작은 궁중 비극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동물원과 식물원, 이왕가 박물관이 들어서고, 이름도 '창경원'으로 격하되는 등 수난을 겪었다

15. 조선 시대의 통치 기구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 (가) 국왕에게 잘못이 있으면 간언하고, 정책에 대해 의논하거나 반박하는 직무를 관장하였다.
 (나) 관원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것을 풀어 주며, 그때그때의 정사를 논하여 바르게 이끌었다.
 (다) 궁내의 경전과 서적을 관리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왕의 자문에 대비하는 일을 관장하였으며, 수시로 휴가를 받아 독서에 전념할 수 있는 특전을 받았다.

- ① (가) - 백관의 규찰과 국왕의 보필 기능을 수행하였다.
 ② (나) - 대역모반 등 국가의 큰 죄인을 다스렸다.
 ③ (다) - 옥당, 청연각이라고도 불리었다.
 ④ (가), (나) - 간쟁·봉박·서경을 담당하였다.
 ⑤ (가), (나), (다) - 학문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 주로 임명되었으며 청요직이라 불렸다.

정답: ②

* 조선의 언론 3사: (가)사간원, (나)사헌부, (다)홍문관

사헌부(주로 백관 규찰, 기강·풍속 정립, 사법권, 경연, 서경·간쟁·봉박) 사간원(주로 국왕에 대한 간쟁, 신료에 대한 탄핵, 경연, 서경·간쟁·봉박), 홍문관(주로 왕의 자문 및 경연 강의, 경서·사적의 관리, 문한(文翰)의 처리)의 3 사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정사를 비판하며, 문필 활동을 하면서 언론 기능을 담당하였다. 3 사의 언론은 고관은 물론이고 왕이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고, 이를 위한 여러 규정이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같은 3 사의 기능 강화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 시대 정치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이 밖에, 국가의 큰 죄인을 다스리는 의금부,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 역사서 편찬과 보관을 담당하는 춘추관, 최고 교육 기관인 성균관 등이 있었다.

③ 홍문관은 국왕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아 보아 ‘옥당’이라고 하고, 경연을 위해 설치한 건물인 청연각이라고도 불리웠다.

⑤ 3사의 언관은 비판 기능을 담당하기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어 청요직(淸要職)이라 불리웠고, 벼슬 등급은 높지 않았으나, 학문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 주로 임명되었다. 이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나중에 판서나 정승 등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16. 다음 특강의 강좌별 제시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시민 특강 우리 박물관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교양 강좌를 기획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간: ○○월 ○○일~○○일 장소: △△ 박물관 강의실	주제: 고려 시대의 문화 1강: 천문학의 발달 2강: 불상 양식의 흐름 3강: 원의 영향을 받은 문화 4강: 금속 활자 발명의 의미 5강: 건축 양식의 특징
---	--



정답: ③

* 고려의 시대의 문화재와 흐름

• 고려의 천문학은 천문 관측과 역법 계산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천문과 역법을 맡은 관청으로서 사천대(서운관)가 설치되었고, 이 곳의 관리는 첨성대(개성)에서 관측 업무를 수행하였다

• 고려 시대의 불상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독특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초기에는 광주 춘궁리 철불 같은 대형 철불이 많이 조성되었다.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나 안동 이천동 석불처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지역 특색이 잘 드러난 거대한 불상도 조성되었다. 또,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같이 신라 시대 양식을 계승한 걸작도 있다.

• 고려 시대의 석탑은 신라 양식을 일부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조형 감각을 가미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다각 다층탑이 많았고, 안정감은 부족하나 자연스러운 모습을 띠었다. 석탑의 몸체를 받치는 받침이 보편화되었다. 개성 불일사 5층 석탑과 오대산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이 유명하며, 고려 후기의 경천사 10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본뜬 것으로, 조선 시대로 이어졌다. 지역에 따라서 고대 삼국의 전통을 계승한 석탑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 고려 시대에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명되었다.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한 직지심체요절(1377)이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받고 있다.

• 고려 전기에는 주로 주심포 양식이 유행하였는데, 13 세기 이후에 지은 일부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가장 오래 된 건물로 알려져 있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균형잡힌 외관과 잘 짜여진 각 부분의 치밀한 배치로 고려 시대 건축의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 ① 고려의 첨성대(경기 개성)
- ② 광주 춘궁리 철불
- ③ 오대산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 ④ 직지심체요절
- 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17. 지도는 우리나라 국경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마)와 관련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가) - 신라가 당을 물리치고 삼국을 통일하였다.
 ② (나) - 태조 왕건이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③ (다) - 별무반이 출정하여 여진을 몰아내고 성을 쌓았다.
 ④ (라) - 공민왕이 원의 세력 약화를 이용하여 영토를 수복하였다.
 ⑤ (마) - 세종이 삼남의 일부 주민을 이주시키고 토관을 임명하였다.

정답: ③

* 역대 우리나라의 국경선 변화

(가) **신라의 통일 직후:** 신라의 삼국 통일은 외세의 이용과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를 경계로 한 이남의 땅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의 세력을 무력으로 몰아 낸 사실에서 자주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고려 태조:** 태조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자 하는 의욕으로 강력한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적극 개발하였다. 그 결과,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다) **강동 6주 확보 후:** 거란의 1차 침입 때(993) 외교 담판에 나선 서희가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는 대신,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인정받고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라) **쌍성총관부 수복 후:** 공민왕은 무력으로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다(1356).

(마) **4군 6진 개척 후:** 조선은 영토의 확보와 국경 지방의 안정을 위하여 여진에 대하여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펴 나갔다. 우선 태조에 의하여 일찍부터 두만강 지역이 개척되었다. 이어 세종 때에는 4군과 6진을 설치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을 확정하였다(1449).

③ 12세기 초 부족의 통일을 이룬 여진족이 고려의 국경까지 남하하면서 고려군과 자주 충돌하였다. 고려는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별무반이라는 특수 부대를 편성한 다음,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 내고 동북 지방(함남 평야 지대) 일대에 9개의 성을 쌓았다(1107).

18. 다음 시의 작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잠발 마을 짙은 짙한 물음도 서러워라.
관아 문항해 울부짖다 하늘 보고 통곡하네.

시아버지 죽어서 이미 삼복 입었고
갓난아인 배냇물도 막 달랐는데
삼태의 이름이 군칙에 올랐구나.

달려가 호소하려 해도
관가의 문지기 호랑이 같은데
이정(里正)이 호통하며 단벌 소마저 끌고 가네.

남편 문득 칼을 갈아 밤 안으로 뛰어드니
자리에 선혈이 남자하구나!
스스로 한탄하길 "아이 낳은 죄로구나!"

— <보기> —

- ㄱ. 한강에 놓았던 배다리를 설계하였다.
ㄴ. 『마과회통』을 지어 종두법을 소개하였다.
ㄷ. 매매할 수 없는 영업전의 설정을 주장하였다.
ㄹ. 정조의 윤음에 따라 『과농소초』를 저술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 조선 후기 실학의 대표가 정약용

• 제시된 시는 군적의 문란을 비판한 정약용의 애절양(哀絶陽)이라는 시이다.

•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확신하고 기술의 개발에 앞장섰던 사람은 정약용이었다. 그는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것은 기술 때문이라고 보고, 기술의 발달이 인간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스스로 많은 기계를 제작하거나 설계하였다. 그는 서양 선교사가 중국에서 펴낸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만들었는데, 이 거중기는 수원 화성을 쌓을 때에 사용되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줄이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정약용은 정조가 수원에 행차할 때 한강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배다리도 설계하였다.

또한 정약용은 마진(홍역)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키고 이 분야의 의서를 종합하여 마과회통을 편찬하였으며, 박제가와 함께 종두법을 연구하여 실험하기도 하였다.

㉠ 이익은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자고 주장하였다.

㉡ 박지원은 정조의 권농정구농서윤음(勸農政求農書綸音)을 받들어 농서 <과농소초>를 찬진(撰進)하였다

19. 밑줄 그은 ㉠~㉥ 정책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봉당 정치가 변질되고 그 폐단이 심화되면서 일당 전제화의 경향이 나타났다. 영조와 정조는 특정 봉당의 권력 장악을 견제하기 위하여 탕평 정치를 추진하였다. 영조는 ㉠탕평파를 육성하였다. 또한 ㉡균역법을 실시하였으며, 「속대전」과 「국조속오례의」를 편찬하였다. 정조는 규장각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또한, ㉣수령이 군현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하였고, ㉤격쟁과 상언을 활성화하였다.

- ① ㉠ - 국왕 중심의 정치 집단이 형성되었다.
- ② ㉡ - 군포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결작이 부과되었다.
- ③ ㉢ - 국왕의 친위 체제가 강화되었다.
- ④ ㉣ - 중앙 세력과 재지사족의 협력 토대가 강화되었다.
- ⑤ ㉤ - 백성과 국왕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정답: ④

*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책

① 탕평 정치는 영조 때 자리잡았다. 영조는 왕과 신하 사이의 의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봉당을 없애자는 국왕의 논리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

② 영조 때에 균역의 개혁인 균역법이 시행되었다(1750). 이로부터 농민은 1 년에 군포 1 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 결당 미곡 2 두를 부담시키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③ 정조는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

④ 정조는 수령이 군현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하여 지방 사림(재지사족)의 영향력을 줄이고 수령의 권한을 강화 하였다.

⑤ 정조 때에는 상언(上言)·격쟁(擊錚)의 제도에 붙어 있던 모든 신분적 차별의 단서들을 철폐하여 누구든 억울한 일은 무엇이나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하여 능행중에 그것들을 접수하도록 하였다. <일성록>과 실록에 실린 상언·격쟁의 건수만도 5,000건을 넘는다.

20. (가) 시기에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한 것은? [2점]



정답: ⑤

* 직전법과 관수관급제 실시 사이의 경제상

조선은 관리의 경제 기반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토지 제도를 운영하였다.

과전은 경기 지방의 토지로 지급하였는데,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죽은 관료

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홀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토지가 세습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15세기 후반에는 직전법 (1466, 세조)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수신전, 홀양전 폐지)하다가 16세기 중엽에는 이마저도 폐지하였다.

수조권을 받은 자(전주)는 스스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과전법의 경우에는 10분의 1을 농민에게 세금으로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수조권을 가진 양반 관료가 이를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잦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종 때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관수관급제: 1470). 이에 양반 관료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는 방식은 사라지고,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① 고려의 군인전은 군역의 대가로 주는 토지였다. 군인전은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③ 1417년(태종)에 과전으로 지급될 땅 1/3을 하삼도(충청·전라·경상도)로 이급하였다가, 세원의 감소와 식량부족으로 1431년(세종)에는 하삼도 사전을 다시 경기도로 이환하게 되었다.

④ 고려는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전시과 제도를 운영하였다. 국가는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 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

21. 다음 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된 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격물치지(格物致知)에서 격물은 사물에 이끄는 마음속의 부정을 바로잡는 것이며, 치지는 치양지(致良知)로서 마음 속의 도덕적 의지인 양지를 남김없이 발현하는 것이다.
- 인간의 마음이 오욕칠정에 의해 흐려질지라도 인간의 마음 속에 이미 양지에 의거한 행위인 이(理)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즉리(心卽理)를 구현하도록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① 인물성동이론에 관한 논쟁을 벌였다.
- ② 예학을 학술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 ③ 일반 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인정하였다.
- ④ 군주 스스로가 성학을 따를 것을 제시하였다.
- ⑤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전론을 제시하였다.

정답: ③

* 양명학과 강화학파

- 성즉리(性卽理)의 성리학과는 달리 양명학은 심즉리(心卽理)를 강조하고 타고난 참된 앎인 양지(良知)에 치중하라는 치양지설을 주장한다. 또한 선지후행(先知後行)의 성리학과는 달리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입장이다.

• 성리학의 절대화와 형식화를 비판하며 실천성을 강조한 양명학은 종종 때에 조선에 전래되었다. 학자들 사이에 관심을 끌어가던 양명학은 이황이 정통 주자학 사상과 어긋난다며 비판하면서 이단으로 간주되었다. 18 세기 초에 정제두는 몇몇 소론 학자가 명맥을 이어가던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학파로 발전시켰다. 그는 일반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인정하였으며, 양반 신분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이 정권에서 소외된 소론이었기 때문에, 그의 학문은 집안의 후손과 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계승되었다.

강화 학파는 양명학을 바탕으로 역사학, 국어학, 서화, 문학 등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 갔으며, 실학자들과도 영향을 주고 받았다.

① 18 세기 성리학의 이이 학파를 계승한 노론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호락 논쟁을 벌였다.

② 성리학자인 김장생은 예학을 학술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④ 성리학자인 이황은 성학집도에서는 군주 스스로가 성학을 따를 것을 제시한 반면, 이이는 성학집요에서는 현명한 신하가 성학을 군주에게 가르쳐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실학자인 정약용은 토지 제도의 개혁론으로 여전론을 처음에 내세웠다가 후에 정전제를 현실에 맞게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22. 다음 정책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 담당 관서로 선혜청을 설치하고, 도제조 1명, 부제조 1명, 낭청 2명을 둔다.
- 도내의 모든 전토에서 1결당 쌀 16말을 징수하되 봄·가을로 나누어 8말을 징수한다.
- 봄·가을로 7말은 선혜청에서 수납하여 경기도에서 상납하던 모든 경납물의 구매에 사용하고, 봄·가을로 1말은 각 군현에 유치하여 수령의 공비(公費)로 사용하게 한다.

< 보기 >

갑 - 농민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였어.
 을 - 방납의 폐단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어.
 병 - 상업과 수공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어.
 정 - 공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였어.

-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정답: ②

* 조선 후기 공납의 개혁 대동법

• 담당 부서가 선혜청이고, 초기 경기도 징수량 16말(전국 확대 후엔 1결당 12말로 통일), 상납미와 유치미로 나누어짐을 통해 대동법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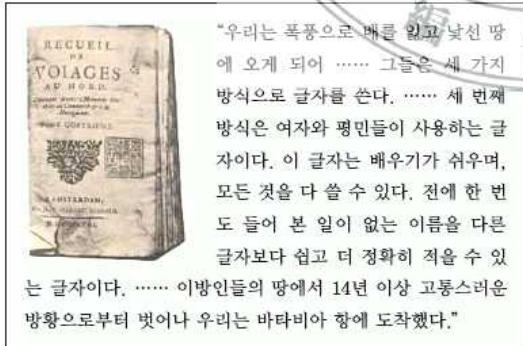
• 방납의 폐단과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가자,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결국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이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

농민은 대체로 토지 1 결당 미곡 12 두만 납부하면 되었다. 이 때문에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던 공물 부담은 없어지거나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라는 어용 상인이 나타났다. 이들은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 공인이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상품 수요가 증가하였다. 농민도 대동세를 내기 위하여 토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쌀, 베, 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후 대동법의 운영 과정에서 폐단(상공만 폐지되고 별공과 진상의 존속으로 인한 백성의 이중 부담, 지주의 소작농에게로 대동세 전가 등)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서 농민들은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3. 다음 서적이 저술된 시기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서인이 국정을 주도하였다.
- ② 서학이 학문으로 들어와 연구되었다.
- ③ 재정 확보를 위해 공명첩이 발급되었다.
- ④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는 법령이 반포되었다.
- ⑤ 혼인 후에 곧바로 신랑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정답: ④

* 하멜표류기가 저술된(1668) 조선 후기 사회상

17세기에는 벨테브레이와 하멜 일행이 우리 나라에 표류해 왔다. 벨테브레이는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서양식 대포의 제조법과 조종법을 가르쳐 주었고, 하멜 일행은 네덜란드로 돌아가 하멜 표류기를 지어 조선의 사정을 서양에 전하였다.

① 조선 후기 특히 인조 반정(1623) 이후에는 서인이 대부분 국정을 주도하였다.

② 천주교는 17세기에 중국 베이징의 천주당을 방문한 우리 나라 사신들에 의하여 서학으로 소개되었다. 천주교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18 세기 후반이었다.

③ 전란(왜란,호란)으로 재정적 타격을 받은 정부가 납속책을 실시하고 공명첩을 발급하자, 서얼은 이를 이용하여 관직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④ 1477년 7월 성종은 중신들의 입법회의에서, 여자는 한 번 시집가면 중신 불개해야 하며, 개가녀의 자식은 벼슬을 시키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내용은 <경국대전>에 성문화되었다.

⑤ 조선 후기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혼인 후에 곧바로 남자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4. (가)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송 황제가 비밀히 유시하기를, “들으니 너희 나라는 (가)와(과) 접경하여 있다고 하는데, 다음 해에 조회 하러 올 때에는 (가) 두어 명을 불러 함께 오는 것이 어떠냐?” 라고 하였다.
- 바야흐로 (가)이(가) 전성기를 맞아 우리나라를 신하 라고 부르게 하고자 하였다. 윤언이가 간쟁하여 말하였다. “(가)은(는) 본래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신복(臣僕)이 되어 차례로 임금께 조공을 바쳐 왔고, 국 경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모두 우리 조정의 호적에 올라 있는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조정이 어떻게 거꾸로 신하 가 될 수 있겠습니까.”

- ① 동북 9성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 ② 고려의 화포 공격으로 퇴각하였다.
- ③ 비단, 자기, 서적 등을 수출하였다.
- ④ 서희와 담판한 후 강동 6주를 넘겼다.
- ⑤ 일본 원정 기구로 정동행성을 설치하였다.

정답: ①

* 고려 때의 여진족

12세기에 거란이 쇠퇴하자, 여진족이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 점차 강성하기 시작하였다. 여진족은 원래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 하여 말과 화살 등을 바쳤고, 고려는 식량과 농기구 등을 주어 그들을 회유하였다. 그러나 완연부가 여진족을 통일하면서 그 세력이 천리장성부근까지 남하하여 고려와 충돌하게 되었다.

이에, 고려는 숙종 때 윤관의 지휘 아래 여진 정벌군을 파견하였으나 실패하자, 별

무반이라는 특별 부대를 편성하였다. 그리하여 예종때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 정벌을 단행하여 여진족을 물리치고, 동북면 지역에 9성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여진족이 잃은 땅을 돌려주기를 간청하는데다 방비하기도 어려워 9성을 돌려주었다.

그 뒤 강성해진 여진족은 금을 세우고, 거란을 공격하였다. 거란은 금과 싸우기 위해 고려에 군사를 요청하였다. 고려는 이를 거절하고, 금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여 거란이 점령했던 압록강 유역의 보주(의주)를 획득하였다.

금은 거란을 멸망시키고 만주와 몽골, 중국의 북부를 지배하게 되자, 고려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해 왔다. 이에 당시 집권자였던 이자겸이 금과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 충신(윤관의 아들 윤언이 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금과 사대의 예를 맺어 평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복진 정책은 한동안 중단되었다.

② 최무선은 이 화포를 이용하여 진포 싸움에서 왜구를 크게 무찔렀다(1380).

③ 고려는 서해안의 해로를 통하여 송에서 왕실과 귀족의 수요품(비단, 약재, 서적, 자기)을 수입하는 대신에 종이, 인삼 등 수공업품과 토산물을 수출하였다.

④ 거란의 1차 침입 때(993)에 외교 담판에 나선 서희가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는 대신,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인정받고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⑤ 원은 일본 원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정동행성을 계속 유지하여 내정 간섭 기구로 삼았다.

25.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우리나라 강산에 방방곡곡
새살림 소리가 넘쳐 나네.
에이해 에이해 우렁차다.
글소경 업새란 소리 높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는 별고개라
이 세상 문맹은 못 넘기네.

- ① 「자활」, 「장산」 등의 잡지를 간행하였다.
- ②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③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 ④ 조선의 고유한 것을 찾아 학술적으로 체계화하였다.
- ⑤ 우리 민족의 손으로 고등 교육 기관을 설립하려 하였다.

정답: ③

* 1930년대의 농촌계몽운동

1920년대 후반부터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궁핍한 농촌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제들을 우선 해결하자는 취지 아래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에 앞장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문맹 퇴치, 생활 개선 등 농촌의 당면 문제들을 일체가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해결하려 하였다.

조선일보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는 구호와 함께 한글 교재를 보급하고, 전국 순회강연을 개최하면서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하였다(1929).

동아일보도 1931년부터 ‘브나로드 운동’이란 이름을 내세워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했는데, 여름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을 모아 행사를 기획하고 교재를 공급하였다.

① 자활(自活), 장산(裝産)은 물산장려운동(1920년대)과 관련이 있는 잡지이다

② 나라 빛을 갖자는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1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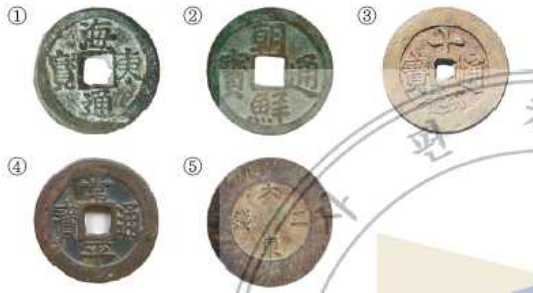
④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과 문화 속에서 민족의 고유한 특색을 찾아내어, 문화적으로 민족의 주체성을 유지하려는 것은 정인보, 안재홍이 주도한 조선학운동이다(1930년대 중반).

⑤ 실력 양성의 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인을 위한 고등 교육 기관인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 1920년대에 본격화되었으나 일제는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방해하고, 일부 한국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1923년 경성 제국 대학 관제를 발표하였다.

26. 다음 자료와 관련된 화폐로 옳은 것은?

[2점]

- 주전도감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백성들이 비로소 돈을 사용하면 이익이 있고, 편리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 사실을 종묘에 고하십시오.”라고 하였다.
- 왕이 이르기를,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서북 두 나라에서는 화폐를 사용한 지가 이미 오래인데, 우리나라만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 …… 주조한 화폐 1만 5천 꺾미를 재추와 문무 양반 및 군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돈을 통용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화폐가 발행되었다. 성종 때에는 철전인 건원 중보를 만들었으며, 숙종 때에는 주전도감(1097)을 설치하고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1102) 등의 동전과 활구(은병)라는 은전을 만들었으나, 널리 유통되지 못하였다. 일반적인 거래는 여전히 곡식이나 삼베를 사용하였다.

② **조선통보**: 고려 말에 등장하여 유통되던 저화의 가치가 날로 떨어져서 화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자 세종 때(1423) 그 보완책으로 주조되었다. 저화와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사첨서(司贍署)에서 관장하여 유통시키려 하였으나 부진하였다. 농민은 화폐로 쌀과 무명을 사용하였다.

③ **십전통보**: 조선 후기 효종 때(1651) 주조된 화폐. 당시 '행전사목(行錢事目)'을 제정 실시하였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 백성들이 동전 50문씩 지니고 다닐 것을 의무화하였는데, 의무수행에 따른 불편을 덜기 위하여 '십전통보(十錢通寶)'를 주조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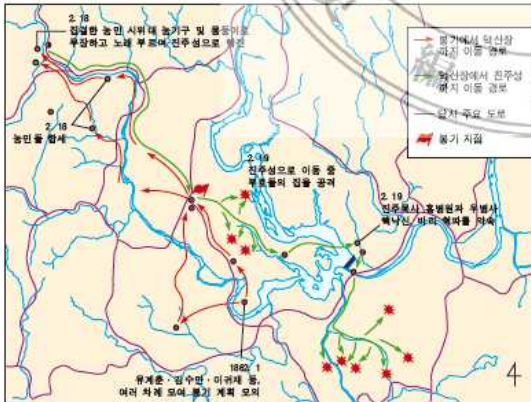
④ **상평통보**: 인조 때(1633) 주조되었다가 숙종 때(1678) 재주조되어 조선 후기 상품 화폐경제 발달에 일조하였다.

⑤ **대동이전**: 개항이래 외국상인들이 왕래하게 되어 외국 화폐가 널리 유통되고 있었는데 그 소재는 모두 은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상평통보는 구리로 만들어져 있어 국제거래상 아주 불편하였다. 그래서 고종 19년(1882)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은화인 대동일전, 대동이전, 대동삼전이 제조되어 전근대적인 상평통보와 근대적 화폐라고 볼 수 있는 대동은전이 나란히 유통되었다.

정답: ①

* 고려 숙종 때에 주조된 화폐

27. 지도는 어느 사건의 전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사건의 수습 과정에서 나온 개혁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전정을 공정하게 운영하자.
- ② 황구첨정의 폐단을 없애자.
- ③ 사창제(社倉制)를 실시하자.
- ④ 동포제(洞布制)를 실시하자.
- ⑤ 세금을 군현 단위의 총액제로 징수하자.

정답: ⑤

* 세도정치기 농민봉기: 진주민란(1862)

농민봉기는 철종 때에 가장 심하여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함흥, 남으로는 제주도까지 확대 되었다.

철종 때에 진주에서 일어난 농민봉기 (1862)는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수탈에 견

디다 못한 농민들이 몰락한 양반 출신인 유계춘 등을 중심으로 일으킨 것이었다. 이 시기의 농민봉기는 대개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일어났으며, 그 규모나 양상도 비슷하였다. 처음에는 관청에 호소하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봉기한 것이다.

안핵사로 파견된 박규수는 민란의 원인이 삼정문란에 있다고 보고 그 수습책을 삼정이정에서 찾아 삼정이정청이 설립되어 이 정청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정과 전정은 옛 제도를 기본으로 그 폐단만을 고치며, 환곡은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토지에 부과하는 '파환귀결'을 방법으로 내놓았다. 삼정이정청은 <삼정이정절목>을 책으로 내면서 철폐되고, 그 뒤 삼정 업무는 비변사에서 관장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못되었다.

② 황구첨정(어린 아이에게 군포 징수)은 군역의 폐단

③ 사창제(양반 지주의 곡식 진휼)는 환곡의 개혁 방안

④ 동포제: 일정한 수량의 군포를 각 동리 별로 주민이 공동 부담해 납부하는 방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양반 면역자들도 군포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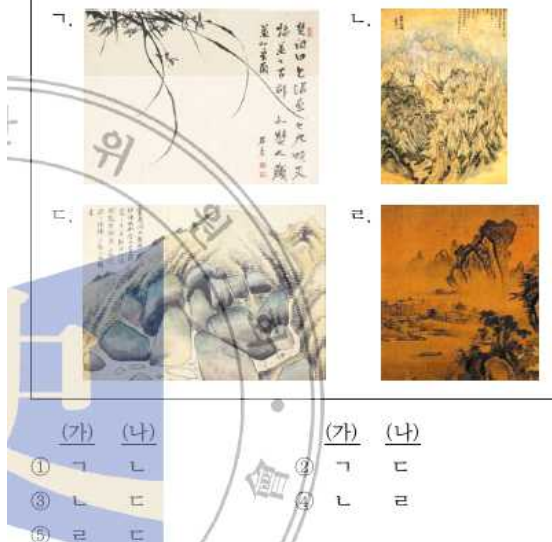
⑤ **총액 징수제:** 구체적으로 세원을 파악하지 않고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도별총액을 할당하여 군현 단위로 정해진 총액을 부세 부담자의 수와 관계없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면, 리, 동의 구성원들의 공동책임 아래 부세를 납부하는 공동납부제이다.

이는 일정액의 부세를 책납하는 한 권세가 들은 수취대상에서 빠지거나 이를 농민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고, 지방관의 포탈도 구조적, 항시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삼정의 문란의 원인이 되었다.

28. (가), (나)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가) 중국 남종과 북종 화법을 고루 수용하여 우리의 고유한 자연과 풍속에 맞춘 새로운 화법이다.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려 회화의 토착화를 이룩하였다.
- (나) 새로운 학술과 사상으로 인식된 서양 문화에 대한 반응에서 유래한 화풍이다. 단순히 하나의 기법으로서가 아니라 조선의 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시도되었으며, 사물을 실감나게 표현하려 하였다.

<보기>



정답: ③

* 조선 후기 화가 (가)정선과 (나)강세황

• 17세기부터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고, 이런 의식은 우리의 고유 정서와 자연을 표현하려는 예술 운동으로 나타났다. 진경산수화는 중국 남종과 북종 화법을 고루 수용하여 우리의 고유한 자연과 풍속에 맞춘 새로운 화법으로 창안한 것이었다.

진경산수화를 개척한 화가는 18 세기에 활약한 정선이었다. 그는 서울 근교와 강원도의 명승지를 두루 답사하여 그것들을 사실적으로 그려 냈다. 정선은 대표작인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에서 바위산은 선으로 묘사하고, 흙산은 묵으로 묘사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산수화의 새로운 경지를 이룩하였다.

• 강세황은 서양화 기법(원근법)을 반영하여 사물을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특히 영통동구도는 남종화적인 기법에다가 대담한 필치와 오늘날의 수채화와도 같은 색채로 바위와 산의 모습을 처리하고 있다. 그의 대표작의 하나로 꼽힌다

- ㉠ 목란첩(홍선대원군)
- ㉡ 금강전도(정선)
- ㉢ 영통동구도(강세황)
- ㉣ 소상팔경도(안견)

29.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다큐멘터리 기획서

1. 제목: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2. 회차별 방송 내용

회차	주제	대상 지역
1	(가)	서울
2	(나)	익산
3	(다)	영주
4	(라)	안동
5	(마)	청주

- ① (가) - 약현 성당 ② (나) - 미륵사지 석탑
③ (다) - 소수 서원 ④ (라) - 봉정사 극락전
⑤ (마) - 상원사 동종

정답: ⑤

* 우리나라의 최고(最古) 문화 유산들

(가) **약현 성당**: 서울 중림동 소재의 한국 최초의 서양식(고딕식) 벽돌조 건물(1892년 완공).

(나) **미륵사지 석탑**: 전북 익산 금마면 소재. 현존하는 석탑 중 가장 오랜 된 석탑으로서 서탑만 일부가 남아 있는데, 목탑의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다.

(다) **소수 서원**: 경북 영주 순흥면 소재. 서원은 풍기 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시초인데(1543), 후일 풍기 군수 이황의 건의로 사액서원이 되며 소수 서원으로 개칭되었다.

(라) **봉정사 극락전**: 경북 안동 서후면 소재. 우리 나라에 남아 있는 목조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그 가치가 높으며 주심포 양식의 특징이 있다.

(마) **상원사 동종**: 강원 평창 진부면 소재(오대산).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동종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범종으로서, 음향이 맑고 깨끗하다.

* 청주에는 흥덕사에서 제작된 직지심체요절이 현존하는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다.

30. 표와 같이 파견된 외교 사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회차	시기	정사	임무
1	선조 40년	여우길	포로 쇄환
2	광해군 9년	오윤겸	대판(大阪) 평정 축하
7	숙종 8년	윤지완	덕천강길 습직 축하
9	숙종 45년	홍치중	덕천길중 습직 축하
12	순조 11년	김이교	덕천가제 습직 축하

- ① 최초로 태극기를 사용하였다.
- ② 교린 정책의 일환으로 파견되었다.
- ③ 「일동기유」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④ 조공과 회사(回賜) 형태의 연행 무역을 하였다.
- ⑤ 정초(正初), 동지 등에 정기적으로 파견되었다.

정답: ②

* 대일본 사절단 통신사

왜란 이후 일본은 조선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에도 막부의 쇼군(將軍)이 바뀔 때마다 그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조선에 사절의 파견을 요청해 왔다. 이에 조선에서는 1607년(포로 쇄환)부터 1811년(덕천가제 습직 축하)까지 12회에 걸쳐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사절을 파견하였다. 통신사 일행은 적을 때에는 300여 명, 많을 때에는 400~500 명이나 되었고, 일본에서는 국빈으로 예우하였다. 일본은 이들을 통하여 조선의 선진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자 하였다. 따라서, 통신사는 외교 사절로 서뿐만 아니라, 조선의 선진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도 하였다(교린 정책).

① 임오군란(1882)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본국에 사죄 사절을 파견한다는 제물포조약에 따라 1882년 8월에 박영효를 정사, 김만식을 부사 김옥균을 고문으로 하는 사절(3차 수신사: 1882.9)을 일본에 파견하였으며, 이 때 일본으로 가는 배 안에서 태극기(1883. 1.27 국기로 공식 인정)를 처음으로 고안하였다고 전해지나 오늘날에는 부정되고 있다(고종 고안설 대두).

③ 일동기유는 1876년 최초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김기수의 일본 견문기록이다.

④ 연행(燕行) 무역은 조선 후기 청나라에 파견된 사신 행렬을 통하여 이루어진 무역이다.

⑤ 정조사, 동지사는 조선 시대에 명나라와 청나라에 정기적으로 파견한 사신이다.

31. 다음 문화유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국왕이 죽으면 다음 국왕이 임시 관청인 실록청을 설치한 뒤, 사관의 사초와 시정기 등을 종합·정리하여 편찬한 것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① 편찬 과정에 국왕이 간여할 수 없었다.
- ② 초초(初草), 중초(中草), 정초(正草) 단계로 편찬되었다.
- ③ 4대 사고에 보관되다 임진왜란 후 5대 사고에 보관되었다.
- ④ 기밀 유지를 위해 편찬에 사용된 자료는 세초(洗草)되었다.
- ⑤ 국정을 날짜순으로 기록한 최대 분량의 단일 역사 기록물이다.

정답: ⑤

* 조선 왕조 실록

조선 태조에서 철종까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각 왕별로 기록한 편년체 사서

실록의 편찬은 대개 전왕이 죽은 후 다음 왕의 즉위 초기에 이루어지는데(국왕 관여 불허), 춘추관 내에 임시로 설치된 실록청(또는 撰修廳·일기청)에서 담당하였다.

실록청의 총재관은 재상이 맡았으며, 대제학 등 문필이 뛰어난 인물이 도청 및 각방 당상으로 임명되었다. 시정기와 사관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사초, 각사 등록, 승정원일기가 실록편찬의 기본자료였고, 문집·일기·야사류 등도 이용되었으며, 후기에는 비변사등록과 일성록도 사용되었다.

실록편찬 과정은 초초(初草)·중초(中草)·정초(正草)의 3단계로 나누어졌다. 초초는 각방의 당상과 낭청이 자료를 분류하고 중요 자료를 뽑아 작성한 초안이다. 중초는 도청에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고, 정초는 총재관과 도청 당상이 중초를 교열하고 최

종적으로 수정·첨삭을 하여 완성한 것이다.

정초본을 인쇄하여 사고(史庫)에 봉안하고 편찬에 이용된 시정기·사초 및 초·중·정초는 모두 세초(洗草: 없애는 것)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필화를 막자는 것이었다(기밀 유지). 초기에는 실록청의 기사관이 편찬 작업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 처벌받은 일도 있었고, 사초에 사관의 이름을 명기하도록 하여 문제가 되었던 적도 있었으나, 대체로 편찬과정의 공정성과 익명성은 보장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실록은 선왕 및 신하들의 행적과 정책의 득실을 기록한 것이었으므로 국가의 제례나 사신 접대 등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전례를 참고하기 위해 사관이 내용 일부를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열람도 허용되지 않았다.

조선 전기에는 춘추관과 충주·전주·성주 등 4곳에 사고(史庫)가 있었는데 임진왜란으로 전주 사고를 제외한 모든 사고가 불에 타버렸으며, 1603년(선조 36)에서 1606년까지 전주 사고본 실록을 근거로 태조에서 명종까지 13대에 걸친 실록을 다시 4부씩 인쇄하였다.

* 조선 후기 5대 사고:

한양 창덕궁내 춘추관에 중양 사고, 강화도에 정족산 사고, 무주에 적상산 사고, 봉화에 태백산 사고, 평창에 오대산 사고

⑤ 승정원 일기: 조선시대에 왕명 출납을 관장하던 승정원에서 매일매일 취급한 문서와 사건을 기록한 일기. 조선시대의 최고 기밀기록이며, <비변사등록>, <일성록> 등과 더불어 국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이며, 2001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32. 다음 상황이 벌어진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1점]

승지 중에 하나가 내 죄명이, *국모보수인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이미 재가된 안건을 다시 가지고 어전에 나아가 임금께 죄인즉, 상감께서는 즉시 어전 회의를 여시와 내 사형을 정지하기로 결정하시고 곧 인천 감리 이 재정을 전화로 부르신 것이라 한다. 전화가 인천에 통하게 된 것이 바로 내게 관한 전화가 오기 사흘 전이었다고 한다. 만일 서울과 인천 사이에 전화 개통이 아니 되었던들 아무리 위에서 나를 살려 하셨더라도 그 은명(恩命)이 오기 전에 나는 벌써 죽었을 것이었다고 한다.

- 「백범일지」 -
*국모보수: 국모의 원수를 갚다

- ① 광혜원에서 진료하는 의사
- ② 전차를 타고 청량리로 가는 학생
- ③ 인천으로 가는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
- ④ 당일 발행된 한성순보를 보고 있는 노인
- ⑤ 경복궁에 설치된 전등을 관리하는 기술자

정답: ⑤

* 김구의 쓰치다 중위 살해 사건 구명과 전화 개통(서울-인천) 시기의 역사상: 1896년

• 한국에서 전화가 사용되기 시작된 것은 1896년 당시 궁내부 주관으로 궁중에서 각 아문과 연락을 위해 덕수궁에 전화시설을 마련하여 각 아문은 물론 인천에 있는 감리소에까지 전화를 개통하면서부터이다

① 광혜원(->제중원: 1885.3) 설립 (1885.1): 알렌, 최초의 서양식 병원

② 전차 개통(1898): 서대문~청량리, 미국(한성전기회사, 콜브란)

③ 경인선 개통(1899): 미국(부설권, 모스, 1896) -> 일본

④ 한성순보(1883~1884.12): 박문국에서 출간한 최초의 신문, 관보, 순환문

⑤ 경복궁 전등 가설(1887): 중국이나 일본의 궁정 설비보다 2년이나 앞섰음.

33. 다음 글을 지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꿈에 신(神)이 칠장의 의복을 입고 현철한 모습으로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초나라 회왕인 손심인데 서초패왕에게 살해되어 빈강에 잠겼다.” …… 나는 꿈을 깨어 놀라며 생각하기를 “회왕은 남초 사람이요, 나는 동이 사람으로 지역의 거리가 만여 리가 될 뿐 아니라 세대의 전후도 천 년이 넘는데, 꿈속에 와서 감응하니 이것이 무슨 상서로움일까. 또, 역사를 상고해 보아도 강에 잠겼다는 말은 없으니 어찌 항우가 사람을 시켜서 비밀리에 쳐 죽이고 그 시체를 물에 던진 것일까? 이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드디어 글을 지어 조문한다.

- ① 김굉필, 유희인 등을 제자로 길렀다.
- ② 서원을 건립하여 후학을 양성하였다.
- ③ 권근, 하륜 등과 「동국사략」을 편찬하였다.
- ④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하다 죽임을 당하였다.
- ⑤ 향약의 실시, 내수사·장리 폐지 등의 개혁을 주도하였다.

정답: ①

* 조의제문을 지은 사람의 대표 김종직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이자 영남 학파의 종조이며, 그가 생전에 지은 조의제문이 그가 죽은 후인 1498년(연산군4) 무오사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그는 부관참시를 당하였으며, 많은 제자가 죽음을 당하였다.

문하생으로는 정여창(후일 5현으로 문묘에 배향) ·김굉필(후일 5현으로 문묘에 배향) ·김일손(후일 사관으로 무오사화와 관련됨) ·유희인 ·남효온 등이 유명하다

② 최초의 서원은 1543년에 나타났다(주세붕의 백운동 서원)

③ 16세기 박상이 편찬한 <동국사략>과 다른 15세기 초의 <동국사략>은 권근, 하륜, 이첨 등이 편찬하였고, 단군조선~삼국 시대까지의 역사를 편년체, 강목체, 사론 형식으로 다루었다. 신라 중심적 서술을 담고 있다.

④ 사육신: 성상문, 박팽년, 하위지, 유응부, 유성원, 이개, 김문기(1982년 추가)

⑤ 조광조의 개혁: 경연의 강화, 언론 활동의 활성화, 위훈(僞勳) 삭제, 소격서의 폐지, 소학의 보급, 향약의 보급, 내수사장리 폐지, 방납의 폐단 시정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내수사장리: 조선 왕실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고리(高利)로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

34. 다음과 같이 군제를 개편한 내각이 추진한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칙령 제169호로 혼련대를 폐지하다.
- 칙령 제170호 '육군 편제 강령'을 반포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육군을 2종으로 나눈다. (1) 친위 (2) 진위
 2. 친위는 경성에 주둔하여 왕성 수위를 전임한다.
 3. 진위는 부, 혹은 군에 중요한 지방에 주둔하여 지방 진무와 변경 수비로 전임한다.
 4. 각 위의 진술 단위를 대대라 하되 각 대대는 4중대로 편성한다. 단, 진위의 대대는 아직 2중대로 편성한다.
 5. 본령은 반포일부터 시행한다.
- 칙령 제172호로 평양부와 전주부에 진위대 각 1대대를 설립한다.

— < 보 기 > —

- ㄱ. 서울에 관립 소학교를 세웠다.
- ㄴ. 은 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였다.
- ㄷ. 우편 사무를 위해 우체사를 두었다.
- ㄹ. 의정부와 각 아문의 명칭을 내각과 부로 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을미개혁(1895.8~1896.2)

을미사변 결과 다시 성립된 친일 내각은 태양력 사용, 소학교 설치와 우편 사무 시작(우체사), 종두법과 단발령 실시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건양'이라는 새 연호를 사용하고, 군제를 고쳐 중앙에 친위대, 지방에 진위대를 두었다.

㉠ 1차 갑오개혁(1894.7): 군국기무처 주도

정치: 궁내부와 의정부 분리, 국왕의 전제권 제한, 의정부에 권한 집중, 6조를 8아문으로 개편, 과거제 폐지, 경무청을 설치, 개국 연호 사용

경제: 국가 재정 일원화(탁지아문), 은 본위 화폐제, 조세의 금납화, 도량형 통일

사회: 신분제 폐지, 공사 노비제 혁파, 조혼 금지, 과부의 재가 허용, 고문과 연좌제도 폐지

㉡ 2차 갑오개혁(1894.12): 홍범 14조 반포.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편(8아문->7부), 지방 제도 개편(8도 -> 23부, 337군), 지방관의 사법권과 군사권을 배제, 재판소 설치, 교육입국조서 반포(한성 사범 학교 관제, 소학교 관제, 외국어 학교 관제)

35. (가)~(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개항기 조선이 청·일과 맺은 조약〉		
계기	상대국	조약
(가)	일본	강화도 조약
(나)	일본	제물포 조약
	청	(다)
갑신정변	일본	(라)

〈 보기 〉

- ㄱ. (가) - 불법 침입한 일본 군함이 영종도를 포격하였다.
 ㄴ. (나) - 사태 수습을 위임받은 흥선 대원군이 재집권하였다.
 ㄷ. (다) -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이 확인되었다.
 ㄹ. (라) - 일본 공사관의 호위병 주둔이 허용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④

* 개항기의 청·일과 맺은 조약의 원인과 내용

(가) **운요호 사건**(1875): 일본은 군함 운요호를 이끌고 강화 해역에 접근하였다. 조선군이 포격을 가하자 초지진을 포격하고 인천의 영종도에 상륙하여 큰 피해를 입히는 등의 무력시위를 하며 통상 수교할 것을 강요하였다. 일본의 통상 요구에 대해 조선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어났으나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하였다.

(나) **임오군란**(1882): 별기군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던 폭발하여 궁궐을 습격한 구식 군인들은 흥선 대원군에게 도움을 요청(일시 재집권)하는 한편, 개화 정책을 추진한 민씨 정권의 고관 집을 습격하고 일부 관리들을 죽였다. 도시 하층민까지 가세한 군중들은 관청을 공격하고, 별기군의 일본 교관을 살해하였으며,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 민씨 정권의 원군 요청으로 난을 진압한 청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체결을 강요하여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문화하고 청 상인의 내륙 진출과 치외법권을 인정받았다.

(라) **한성조약**(1885): 갑신정변 직후 조선은 정변에 관여하여 주권을 침해한 일본에 엄중히 항의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무력을 동원하여 정변 때 죽은 일본인에 대한 배상과 불에 탄 일본 공사관의 신축비 보상을 요구하였다. 조선은 한성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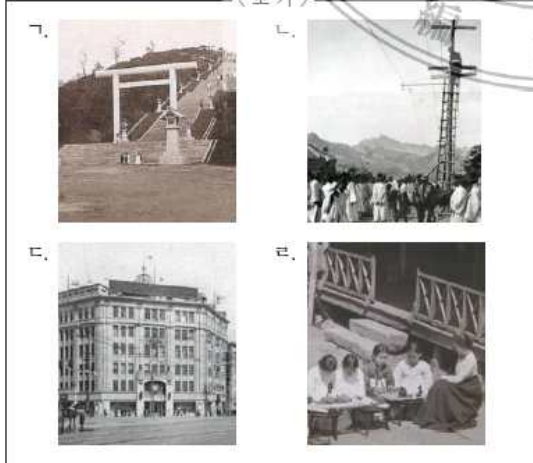
㉔ 임오군란으로 인한 일본인의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정부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보호를 구실로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후 일본은 제물포 조약(1882)을 체결하여 배상금을 받아내고 공사관에 일본 경비병을 주둔시켰다.

36. 다음 기사에서 소개하는 사진전에서 전시 자료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110년 전 외국인 ○○○의 서울 방문' 특별전

△△ 박물관은 해외 교류전와 일환으로 외국인 ○○○이 (가) 110년 전 3주간 서울을 방문하였을 때 촬영한 사진을 중심으로 전시회를 연다. ○○○이(가) 찍은 사진들은 당시 서울의 생생한 역사와 풍경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다.

< 보기 >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정답: ④

* 1901년의 서울의 모습

㉠ 남산 신사(神社): 1920~1926 건설

㉡ 송전탑 건설: 콜브란의 한성전기회사는 전차(1898~1899), 동대문발전소(1898~1900) 건설 등의 전기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 화신백화점: 최초의 현대식 백화점. 1931년 박흥식이 건립하였으나, 1935년 1월 27일 화신백화점 서관에서 불이 나 전소된 후 박길룡의 설계로 1937년 11월 지하 1층, 지상 6층의 현대식 백화점 건물이 세워졌는데 당시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 이었고, 내부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고 옥상에 전광뉴스판이 설치되었다

㉣ 외국인 교사에게 교육받는 여학생들: 최초의 근대식 여학교는 1886년 스크랜턴 부인이 세운 이화학당이다. 그 외에도 서울에 정신여학당(1887), 배화학당(1898) 등이 있었다.

37. 다음은 어느 선언문과 이에 대한 언론의 반응이다. 이 선언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슬프다! 돌이켜 전일을 생각하면 사나이의 위력으로 여편네를 누르려고 구설을 빙자하여 여자는 안에 있어 밖의 일을 말하지 않으며 오로지 밥하고 옷 짓는 것만 알라 하니 어찌하여 신체수족이목이 남자와 다른없는 한 가지 사람으로 깊은 방에 처하여 다만 밥과 술이나 지으리오.

도금에 구구를 진폐하고 신학을 시행함이 우리도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따라 타국과 같이 여학교를 설치하고 각각 여아들을 보내어 각항 제주와 규칙과 행세하는 도리를 배워 일후에 남녀가 일반 사람이 되게 할 차.

황성신문: 하도 놀랍고 신기하여 이를 기재한다.

제국신문: 우리나라 부인네들이 이런 말을 하며 이런 사업 창설할 생각이 날 줄을 어찌 뜻하였으리오. 진실로 희한한 바아로다.

독립신문: 정부 기금에 불필요하게 쓰이는 20여 만 원과 급하지 않은 군사 등액비 100여 만 원을 여성 교육비에 쓰라.

- ① 찬양회의 첫 공식 집회에서 낭독되었다.
- ②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여권 선언으로 평가된다.
- ③ 서울 북촌 양반 부인들이 뜻을 일으켜 발표하였다.
- ④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학교가 세워지는 배경이 되었다.
- ⑤ 천부인권 사상을 바탕으로 남녀 평등권의 획득을 구상하였다.

정답: ④

* 최초의 여권 선언문 ‘여권 통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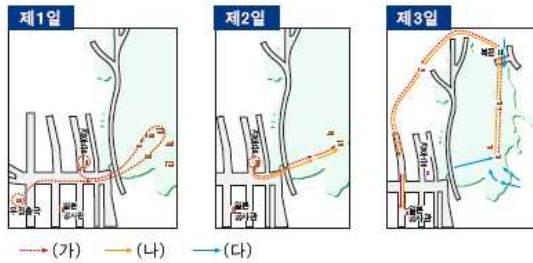
1898년 9월1일 서울의 북촌 부인들을 중심으로 찬양회가 조직되어 우리 나라 최초의 여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찬양회는 독립신문과 황성 신문에 여성의 참정권, 직업권, 교육권 등 천부인권에 기반을 둔 평등권을 주장하는 ‘여권 통문’을 발표하였다.

여권 통문은 당시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제국신문은 ‘희한한’ 일이라고 놀라움을 표했고, 독립신문은 정부가 여성 교육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라고 주장하였다.

찬양회는 여성 계몽을 위한 연설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여성 교육을 위해 관립 여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1899년 사립 여학교인 순성여학교를 세웠다.

④ 최초의 근대식 여학교는 1886년 스크랜턴 부인이 세운 이화학당이다. 그 외에도 서울에 정신여학당(1887), 배화학당(1898) 등이 있었다.

38. 지도는 어느 사건의 전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가)~(다) 세력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가) - 개혁 정당을 국왕의 전교로 공포하였다.
- ② (나) - 국왕의 환궁을 호위하였다.
- ③ (다) - 사건을 빌미로 흥선 대원군을 압송하였다.
- ④ (가), (나) - 정변을 사전에 모의하였다.
- ⑤ (나), (다) - 텐진 조약을 체결하고 철군하였다.

정답: ③

* 갑신정변(1884)의 전개 과정

(가) 개화당, (나) 일본군, (다) 청군

• 1884년 청과 프랑스 사이에 베트남 문제를 둘러싸고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나타나자, 청은 조선 주둔군의 절반을 베트남 전선으로 이동시켰다. 급진 개화파는 이를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정변을 계획하였다.

급진 개화파는 청군의 반격을 막고 개혁에 필요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청·프 전쟁을 조선에 대한 영향력 강화의 기회로 여긴 일본은 급진 개화파를 침략의 통로로 이용하려고 하

였다. 이에 일본은 급진 개화파에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한편, 급진 개화파는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일부 조선 군인들을 정변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김옥균 등의 급진 개화파 요인들은 1884년 10월 홍영식이 총판으로 있던 우정총국 건물 완공의 축하연회를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켰다. 이들은 창덕궁에 있던 고종을 경수궁으로 옮겨 일본군의 호위를 받도록 하였고 민씨 정권의 고관들을 죽이고 새 내각을 발표하였다. 이어 청에 대한 사대 관계의 청산, 인민 평등권 확립과 내각 중심의 정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 정강을 국왕의 전교로 발표하고 근대적 국가 수립을 위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참혹하게 목숨을 잃은 대신들을 보면서 개화당에 대한 믿음을 버렸다. 왕비의 환궁 요구에 따라 고종은 다시 창덕궁으로 돌아왔다. 청군이 공격해오자 급진 개화파의 군대는 수와 무기의 열세로 패퇴하였고, 일본군은 일본 정부의 훈령에 따라 철수해버렸다. 정변은 3일 만에 실패로 끝났다. 김옥균, 박영효 등은 일본으로 망명하였고, 홍영식은 끝까지 왕을 호위하다 죽음을 당하였다.

④ 임오군란(1882) 때에 청은 3천 명의 군대를 파견하였다. 청군은 임오군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흥선 대원군을 청으로 압송하고 도시 하층민들의 저항을 진압하였다.

⑤ 일본은 갑신정변 이후 불리해진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청에 보냈다.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 양국 군대를 철수시키고 장차 조선에 군대를 파병할 때에는 사전에 서로 알린다는 내용의 텐진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당분간 한반도에서 청·일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다.

39. 다음 법령이 시행되었던 시기의 경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제1관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4관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7관 임시 토지 조사국은 토지 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해 사정으로 확정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등록한다.

- ① '지세령'을 통해 지세 수입의 증가를 꾀하였다.
- ② 호남선, 경원선, 함경선 등 철도망을 확대하였다.
- ③ 광상 조사(鑛床調査)를 통해 전국의 지하자원을 파악하였다.
- ④ 회사를 설립하거나 해산할 때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 ⑤ 농업 이민을 장려하기 위해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정답: ⑤

* 토지조사 사업(1912~1918) 시기의 일제의 경제 정책(1910년대)

대한 제국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은 일제는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일제의 목표는 경제 구조를 일제의 상품과 자본을 수출하고, 한국의 식량과 원료를 수탈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조사 사업, 임야 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회사령, 삼림령, 어업령, 광업령(광상 조사)을 공포하였다.

1910년에 시작된 토지 조사 사업은 1912년 토지조사령을 공포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사업은 토지의 소유권, 토지 가격, 지형 및 용도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총독부는 당사자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소유권을 인정하고, 대한 제국 정부 소유지와 황실 소유지, 미신고 토지 및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 등은 강제로 빼앗았다. 또,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농민이 오랫동안 누려 왔던 관습적인 경작권을 부정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었고, 기한부 계약에 따라 지주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소작인이 늘어났다. 총독부는 지세부와 대상을 크게 늘리고 토지 가격을 높이 책정하여 토지세를 더 많이 거두어들였다(지세령). 이렇게 거둔 토지세의 대부분은 식민 통치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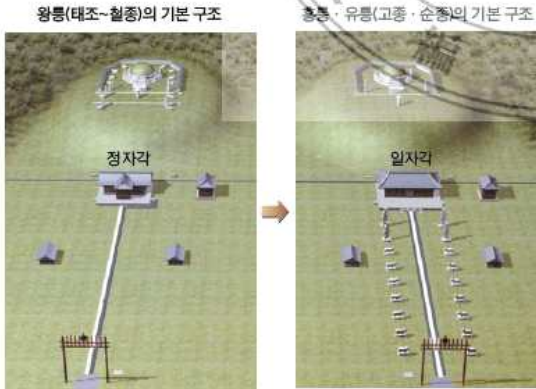
이와 아울러 일제는 회사령을 공포하여, 회사를 설립 하거나 해산할 때에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한국인의 기업 활동과 자본 축적을 억제함으로써 산업 구조를 일제의 의도에 따라 재편하기 위한 것이었다.

② 호남선(1911 ~ 1914), 경원선(1905 ~ 1914), 함경선(1914 ~ 1928)

* 여기서 조심할 것은 3개의 노선이 모두 1910년대 걸쳐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확대된것은 맞는 진술이다.

⑤ 일제는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40. 그림과 같이 능(陵)의 구조가 바뀌게 된 직접적인 계기로
올은 것은? [2점]



- ① 독립 협회가 독립문을 세웠다.
- ② 한· 청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③ 고종의 인산을 계기로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 ④ 고종이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 ⑤ 조· 일 수호 조규에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명시되었다.

정답: ④

* 대한제국의 출범과 능 구조의 변화

홍·유릉: 고종과 비 명성황후 민씨를 합장한
홍릉과 순종과 순명효황후, 순정효황후의
무덤인 유릉 함께 있는 능이다

고종이 원구단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홍릉은 황제
릉의 양식을 따라 명나라 태조의 효릉을 본
떠 조성되었다. 꽃무늬를 새긴 12면의 병풍
석으로 봉분을 둘렀으며, 봉분 밖으로 역시
꽃무늬를 새긴 12칸의 난간석을 설치하였
다. 혼유석·망주석·사각 장명등의 석물을 배
치하였고, 봉분 밖으로 3면의 나지막한 담
을 둘렀다. 대부분의 조선 왕릉에 설치한
석양(石羊)과 석호(石虎)는 없다.

능이 조성된 언덕 아래쪽에는 정자각 대신
정면 5칸·측면 4칸의 일자형 침전을 세웠
다. 침전 앞의 참도(參道) 양 옆으로 문인
석·무인석과 기린·코끼리·사자·해태·낙타·말
의 동물 석상을 차례로 배치하였으며, 장대
한 크기의 문·무인석은 금관을 쓴 전통적
기법으로 조각되었다. 침전 외의 부속건축
물로 비각·홍살문·수복방·제실 등이 있다.

① 독립협회는 청의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
문을 열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워
(1896~1897) 자주국권의 의지를 보여주었
다.

② 한청통상조약: 1899년 대한제국과 청
사이에 체결된 대등한 조건의 통상조약이다

③ 3.1운동(1919)은 고종의 인산(장례)을
계기로 일어난 거족적 만세 시위 운동이다.

④ 원구단은 천자(天子)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제천단(祭天壇)을 가리킨다.

⑤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의 '조선의 자
주국이다'라는 조약은 일본이 조선에 청의
종주권을 배제하려는 침략적 의도이다.

41. 표와 같은 교육 과정이 시행된 시기의 교육 상황으로 옳은 것은? [2점]

〈고등 보통학교 학년별, 과목별 매주 수업 시수〉

교과목 학년	수신	일본어 및 한문	조선어 및 한문	외국어	역사 지리	수학	박물	물리 및 화학	법제 및 경제	실업	도화
1	1	8	3	6	3	4	2	-	-	-	1
2	1	8	3	7	3	4	2	-	-	-	1
3	1	6	2	7	3	5	2	2	-	-	1
4	1	5	2	5	3	4	2	4	-	2	1
5	1	5	2	5	3	4	-	4	2	2	1
계	5	32	12	30	15	21	8	10	2	4	5

- ①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다.
- ②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 ③ 조선인과 일본인의 학교명이 통일되었다.
- ④ 학생들이 학교에서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였다.
- ⑤ 조선인 학교와 일본인 학교의 수업 연한이 달랐다.

정답: ①

* 2차 조선 교육령 시기의 교육 상황(1920년대): 조선어가 필수 과목으로 된 것으로 보아 2차 조선 교육령 시기임을 알 수 있다.

• 제 1차 조선 교육령(1911): 우민화 교육, 보통·실업·전문학교 구분, 보통학교 4년(일본 6년)

* 서당 규칙(1918): 서당 교육 탄압

• 제 2차 조선 교육령(1922): 유화정책, 보통교육 4년 -> 6년, 한국어를 필수과목, 고등 교육(대학) 가능 -> 경성제국대학 설립(1924), but 식민지 차별 교육

• 제 3차 조선 교육령(1938): 보통학교 -> 심상소학교, 학교명, 교육과정을 일본 본국 학교와 통일, 조선어 선택, 한국사 -> 일본사

• 천황 칙령에 의한 개정(1941): 소학교 -> 국민학교, 교과목을 국민과, 이수과, 체련과, 예능과, 직업과로 통합

• 제 4차 조선 교육령(1943): 한국어 과목 폐지, 전시교육체제 강화

④ 중일전쟁(1937) 이후 모든 학교 조례와 집회에서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강요

42. 다음 장면의 배경이 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이시다 천황은 수업을 앞서 시국(時局) 얘기를 시작하였다.
“전선에서는 매일매일 상황 변화를 위하여 대일본 제국의 남
아들이 죽어 가고 있다. 중후(統後)의 우리들 마음가짐이 안이
하다면 그것은 불행이다.”

일본 아이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감격해 있었지만 조선 아
이들은 말뚱말뚱, 더러는 웃음을 참느라 애를 쓰는 것이었
다. 킁킁, 아주 낮은 웃음소리가 났다.

“다레카(누구냐)?”

바로 옆에 앉은 옥선자가 웃었던 것이다.

“테테고이(나와라). *다마카와, 오마에다로(너지)!”

*다마카와: 옥선자(玉仙子)의 창씨이다.

〈 보 기 〉

- ㄱ. 강제 처축, 공출과 배급이 실시되었다.
- ㄴ. 사상범 통제를 위해 보호 관찰소가 운영되었다.
- ㄷ. 조선인이 다니는 사립 학교의 수가 증가하였다.
- ㄹ. ‘집회 취체에 관한 건’이 공포되어 정치 집회가 금지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 총동원 체제(1938~1945) 시기의 모습

일제는 중일전쟁(1937) 직후 총동원령을 선포(1938)하고 이후 1940년대에는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시기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 하려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내선 일체의 구호를 내세워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또,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쳐 쓰도록 하고,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궁성 요배, 신사 참배 등을 강요하였다.

특히, 일제는 강제 징용으로 한국인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학도 지원병 제도, 징병제도 등을 실시하여 수많은 우리 젊은이를 전쟁에 동원하였다. 또, 젊은 여성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여 군수 공장 등에서 혹사시켰으며, 그 중 일부는 전선으로 끌고 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양곡 배급제를 실시하였으며, 세금을 늘리고 저축을 강요하여 마련된 자금은 군수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물자 부족이 심화되자 일제는 군수 산업 이외의 기업 활동을 통제하기도 하였으며, 광물 자원의 약탈은 물론 학교의 철문이나 집안의 숟가락까지 강제로 빼앗아 갔다(금속 공출).

㉠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1936): 사상범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거주와 취직, 여행의 자유가 제한되며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편지로 통신하는 것을 제한한 법

㉡ 일제의 사립학교령(1908)으로 이후 사립학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무단통치기(1910년대)인 1910년 8월 25일 경무총감부령으로 반포된 ‘집회취체에 관한 건’으로 모든 집회,결사를 금지하였다.

43. 다음은 어느 독립운동의 공판을 다룬 기사이다.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 보기 > —

- ㄱ. 신간회에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후원하였다.
- ㄴ. 광주 지역의 각 학교 독서회가 중심이 되어 일어났다.
- ㄷ. 학생 운동이 식민 통치 전반에 대한 저항으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 ㄹ. “조선인 교육은 조선인 본위로”, “보통학교 용어는 조선어로”를 구호로 외쳤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6.10만세 운동(1926)

• 사회주의자와 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은 순종의 인산일을 기화로 만세 운동을 계획하였다(1926).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한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다.

6월 10일, 일제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학생들은 격문을 살포하고 독립 만세를 외침으로써 대규모의 군중 시위 운동을 전개하였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한 시위는 순종 황제의 인산 행렬을 따라 종로에서 청량리까지 이어졌다. 인천과 개성, 순천과 통영 등에서도 만세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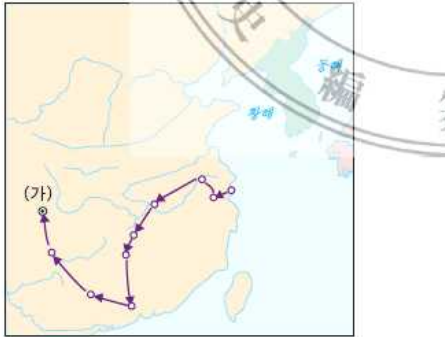
6·10 만세 운동은 학생들에게 민족 자주의식을 불러일으켰고, 스스로가 민족 독립 투쟁의 중요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하였다. 각급 학교에서는 항일 결사가 조직되어 동맹 휴학 등의 방법으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 광주학생항일운동(1929) 때에 신간회에서는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시위를 전국적인 대중 운동으로 확산시킬 목적으로 대규모 민중 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일제가 신간회 간부들을 대거 검거함으로써 중단되었다(민중 대회 사건:1929.12)

㉡ 광주 지역 각급 학교에 조직된 독서회는 학생들의 항일 의식을 고양시키고 동맹 휴학을 주도하며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주도하였다.

㉢ 당시 일제의 보이지 않는 식민지 차별 교육에 분노한 학생들은 “조선인 교육은 조선인 본위로! 보통 학교 용어를 조선어로!”의 구호를 외쳤다.

44. 지도는 어느 독립 운동 단체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 단체가 (가) 지역에서 전개한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
서 고른 것은? [3점]



< 보기 >

- ㄱ.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 ㄴ.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 강령을 공포하였다.
- ㄷ. 의열 활동 전개를 위해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
- ㄹ. 민족 통일 전선을 꾀하고 한국 광복군을 조직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임정의 충청 이동(1940) 이후의 활동

중·일 전쟁 중 일본군이 항저우로 침략하자,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호남성 창사 등을 거쳐 1940년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 사천성 충칭에 정착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인사들은 단일한 민족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충칭에 정착하기 직전에 한국 독립당(조소앙), 한국 국민당(김구), 조선 혁명당(지청천)을 해체하고 한국 독립당을 새롭게 결성하였다.

한국 독립당은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위원을 통해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건국 강령은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보장하는 삼균주의에 입각한 건국 정신을 표방하였으며 광복을 앞두고 분열된 민족 운동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의지도 담고 있었다(민족통일전선).

또한 1940년 9월 충칭으로 옮긴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 임시 정부는 출발할 당시부터 외교를 통한 독립의 성취에 중점을 두었다. 김규식을 전권 대사로 임명하여 파리 강화 회의에 보내 독립청원을 하고(1919), 워싱턴 회의, 국제 연맹으로부터 독립을 보장 받으려고 했으나 강대국의 외면 속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1920년대 후반 이후 침체기에 빠진 임시 정부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김구는 1931년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여 적극적인 의열 투쟁을 전개하였다

45. 지도는 19세기 후반 어느 인물의 활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수신사 일행의 통역으로 활약하였다.
- ② 보병사로 파견되어 미국 대통령을 접견하였다.
- ③ 독립신문의 경영을 맡아 일간지를 발행하였다.
- ④ 「서유견문」을 저술하여 서양 근대 문명을 소개하였다.
- ⑤ 국민을 선비로 만들자는 취지로 흥사단을 창설하였다.

정답: ③

* 개화파 인물 유길준(1854~1914)

한말의 개화 운동가이며 최초의 국비유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하였다. 귀국후 7년간 감금되어 <서유견문>을 집필하였고, 한일합방 후 국민교육과 계몽사업에 헌신하였다.

일찍이 개화파의 태두인 박규수 문하에서 신학문을 배웠으며 1881년 조사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 후쿠자와가 운영하는 게이오의숙에 입학하여 개화사상을 두루 섭렵하였다. 1883년 보병사의 일원으로 미국에 건너가 미대통령 체스터 아서를 접견하고, 이후 미국에 남아 국비유학생으로 대학 진학을 위한 덤머 아카데미를 다녔다.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귀국하라는 고종의 친서를 받고 귀국길에 올랐다. 1885년 대서양을 건너 영국, 포르투갈 등 유럽 여러 나라를 시찰하고 이에 대한 기행문 '서유견문'을 썼고(1895년 출간), 영국에 의한 거문도 사건(1885)이 일어나자 한반도 중립화론을 주장하였다. 이후 개화파의 중심인물로서 갑오, 을미개혁을 주도하였고, 한일합방 후 국민교육과 계몽사업(흥사단)에 헌신하였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조선문전>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 문법서를 조술하였다

① 그는 본래 수신사가 아니지만 박영효를 수신사로 하는 사절단이 일본에 파견될 때 (1882), 그도 함께 가겠다고 자청하여 수신사의 수행원으로 사절단의 통역을 맡아 활약하였다.

③ 본래 독립신문(1896~1899)의 경영자는 서재필이지만 수구파의 탄압으로 미국으로 돌아가고, 윤치호가 주필 겸 실질상의 관리자로 운영을 맡았다. 윤치호는 창간 이후 격일간으로 주 3회 발행하던 것을 1898년 7월 1일부터 일간으로 발전시켰다

46. (가), (나) 정치 세력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1점]

정치 쟁점	정치 세력	(가)	(나)
유엔 감시 하 남한 단독 선거		반대	지지
남북 협상		찬성	반대
미·소 양군 철수		찬성	반대
5·10 선거		불참	참여

- | (가) | (나) |
|-------|-----|
| ① 김구 | 김성수 |
| ② 김성수 | 김규식 |
| ③ 김규식 | 여운형 |
| ④ 이승만 | 김구 |
| ⑤ 여운형 | 이승만 |

정답: ①

* 정부 수립에 대한 단독정부론과 통일정부론

제 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될 때부터 남한 지역의 임시 정부 수립을 주장했던 이승만과 반공을 중시했던 한국 민주당 등은 총선거를 통한 남쪽 지역의 정부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반면, 김구가 이끄는 한국 독립당과 김규식 등의 중도파 세력들은 남쪽만의 선거는 민족 분단의 길이며, 장차 한민족이 미·소 전쟁의 전초전을 벌이는 민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반대하였다.

김구와 김규식 등은 1948년 4월 평양으로 가서 북쪽의 김일성·김두봉 등과 만나 남북 제 정당 사회 단체 지도자 협의회를 개최하였다(남북협상). 협의회에서는 외국 군대의 즉시 철수, 외국 군대 철수 후 내전 발생 부인, 조선 정치 회의 구성 후 총선거를 통한 통일 정부 수립, 남한 단독 선거 반대 등을 공동 성명으로 발표하였다.

김구와 김규식 일행은 서울로 돌아온 후 총선거에 반대하면서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을 펼쳐 나갔다. 이들은 남북 양쪽에서 추진하는 정부 수립 작업을 모두 민족 분열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민족 분단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남북 협상 운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다가 1949년 6월 김구가 암살된 후 단절되고 말았다.

• 김성수는 한민당의 중추 인물이고, 여운형은 중도 좌파로서 1947년에 암살되었다.

47. 다음 수업 장면에서 발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모둠은?

[3점]

학습 주제: 고전 소설에 반영된 시대상 파악하기
○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다.

모둠	고전 소설	발표 내용
1모둠	흥부전	장자 상속제의 단면
2모둠	춘향전	수령의 부패와 탐학
3모둠	허생전	상업이 발달한 조선 후기 경제 상황
4모둠	홍길동전	서열을 차별하는 불평등한 사회 모습
5모둠	박씨전	왜란 중 적군을 물리치는 부녀자의 활약

① 1모둠

② 2모둠

③ 3모둠

④ 4모둠

⑤ 5모둠

정답: ⑤

* 고전 소설에 나타난 시대상

• 허생전에서는 대규모의 매점매석으로 떼돈을 버는 모습은 조선 후기 상공업 발달에서 보이는 사상(私商) 도고(都庫: 큰 규모로 상품을 구매하고 파는 상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 박씨전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가공의 인물 박씨 부인이 청의 실존 장수인 용골대와의 싸움에서 이간다는 설정을 하였다.

48. 다음과 같이 주장한 역사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진정한 민족주의는 민족 전체의 균등한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민족 전체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균등한 의무와 권리와 지위와 생활의 행복을 가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완전한 민족 국가의 이상이 실현될 것이요, 민족의 친화과 단결이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가장적(假裝的)인 민족주의 하에서 민족의 친화 단결이 불가능한 것은 과거의 역사 및 급일의 현실이 명백하게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민족의 단결이 없이 완전한 자주 독립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민족 문화의 세계적 발전 기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민족의 단합은 오직 진정한 신 민족주의에서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조선민족사개론」 -

- ① 계급 투쟁보다는 민족 균등의 입장을 강조하였다.
- ② 진단학회 발기인이었으며, 6·25 전쟁 중 납북되었다.
- ③ 자주적 민족 국가를 수립하려고 민족사를 체계화하였다.
- ④ 민족학 분야도 연구하였으며, 대중의 문화를 강조하였다.
- ⑤ 인류학과 비교언어학적 방법으로 「조선상고사감」을 저술하였다.

정답: ⑤

* 손진태의 신민족주의

손진태(1900~1950(납북)): 한국의 사학자, 민족학자. 한국 최초 민족학회지 <조선민속> 간행, 진단학회 창설에 참여했다. 서울대학교 문리대 학장, 문교부차관 겸 편수국장을 지냈다. '신민족주의사관'을 제창했다. 저서는 <조선고가요집>등이다.

그는 자신이 주창하는 신민족주의의 사학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개방적, 세계적, 평등적(균등적)이라고 하였으나, 역사연구의 단위를 '우리 민족사'라고 단정하였다. 그러기에 그의 <국사대요>에서는 민족의 성장에 따른 시대구분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신석기시대를 민족형성 배태기, 삼국 이전 시대를 민족형성 시초기, 삼국시대를 민족 통일 추진기, 고려시대를 민족의식 왕성기, 조선왕조를 민족의식 쇠퇴기, 그리고 일제시대를 민족운동 전개기로 구분하였던 것이다.

⑤ 안재홍의 저서는 <조선상고사감(朝鮮上古史鑑)>과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이 유명하며, 1930년대에 정인보 등과 함께 한국학 운동을 주도하며 <여유당전집>을 간행하였다

49. 다음 가상 홈페이지에서 (가)~(마)를 클릭했을 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 정부 간 계약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의 생활
- ② (나) - 석유 파동을 계기로 진출한 건설 업체의 활동
- ③ (다) - 사진 신부의 이주를 허용한 사진 결혼법의 내용
- ④ (라) - 신채호, 박용만 등의 대동 단결 선언 발표
- ⑤ (마) - 동서 개발 회사가 신문에 낸 이주민 모집 광고

정답: ③

* 한국 해외 이주민의 역사

(가) 독일, (나) 중동권: 리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다) 구소련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라) 중국, (마) 미국(하와이)

① 독일: 1960년대에 서독은 광부와 간호사가 부족하여, 당시 외화 부족에 시달리던 한국 정부는 광부와 간호사를 서독에 파견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은 한때 우리나라 수출 총액의 23%를 벌어들였다

② 중동권: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큰 시련을 겪었다. 1973년, 4차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한 제 1차 석유 파동은 산유국들이 건설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다.

③ 사진결혼: 1907년 이후 하와이에 건너가 살던 조선인 노동자들은 하와이 농장에서 사탕수수와 파인애플을 재배하는 일을 했는데, 결혼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불만이 높아지자, 농장주들의 요청으로 신랑과 신부의 사진을 보고 결혼을 결정짓는 사진결혼이 이루어졌다.

④ 대동단결 선언: 미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박용만(대조선국민군단: 1914)은 1917년 상해의 신규식·조소앙·신채호 등과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하여 임시정부의 수립을 계획하였다.

⑤ 동서개발회사: 1902년 하와이 당국에서 파견한 데슬러가 한국에 “동서개발회사”를 세우고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 부산, 원산, 진남포 등 전국 주요 항도에 지부를 세워 하와이 이민 모집을 하였다.

50. 다음 상황과 관련된 개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를 것은? [2점]



임시 수도 부산에서 개헌안에 거수
표결하는 국회 의원들의 모습



국회 의원 40여 명이 탄 통근 버스를
현병대로 연행하는 모습

< 보 기 >

- ㄱ.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철폐하였다.
- ㄴ. 국회를 단원제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 ㄷ. 대통령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었다.
- ㄹ. 국회를 민의원, 참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발췌 개헌(1952: 1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

1950년 5월, 제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이 선거로 남북 협상을 통한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중도 세력(무소속)이 국회에 많이 진출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국회 간접 선거로는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였다.

6·25 전쟁 중에,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직선제 개헌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하였다(1952. 1.). 그리고 민주 국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들은 내각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전시 수도인 부산 일대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내각제를 찬성하는 의원들을 현병대로 연행하였다. 또 10여 명의 국회의원을 국제 공산당원으로 몰아 구속했다.

이러한 와중에서 자유당은 대통령 직선제에다 내각 책임제를 약간 가미한 개헌안(양원제: 참의원.민의원)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켰다(1952. 7.).

㉠ 1954년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에서 초대 대통령에 한한 중임 제한을 폐지하였다

㉡ 발췌개헌은 자유당의 대통령 직선제 안과 민주 국민당의 상하 양원제(참의원.민의원) 및 내각 책임제 안을 절충한 개헌안이다. 그러나 제 3대 국회는 하원(민의원)만 구성하고 상원(참의원)은 유보되었다(장면 정권 때만 실시되었고 이후 폐지되었다).